

辛凉解表의 역사와 의미에 대한 고찰

¹경희대학교 대학원 기초한의과학과 대학원생 · ²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윤기령¹ · 백유상² · 장우창² · 정창현^{2*}

A Study on the History and Meaning of Exterior Relief Methods using Pungent-cool Properties

Yun Ki-ryoung¹ · Baik You sang² · Jang Woo-chang² · Jeong Chang-hyun^{2*}

¹Graduate Student at Dept. of Science in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²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xterior relief method through pungent-cool properties in comparison to pungent-warm properties historicall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exterior relief through pungent-cool' more thoroughly.

Methods : Contents mentioning the treatment method directly were examined historically, then analyzed.

Results & Conclusions : The method to relieve the exterior through pungent-cool properties has developed by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method to relieve the exterior through pungent-warm properties since it was first established in 『Shanghanzabinglun』(『傷寒雜病論』). The term 'relief of the exterior through pungent-coolness'(辛凉解表) was first mentioned in the Ming period, referring to weak level of perspiration. Yetianshi(葉天士) explained it as communicating Weiqi(衛氣) using pungent-cool medicinals for heat to discharge through the exterior, resulting in mild sweating. In 『Wenbingtiaobian』(『溫病條辨』) the term 'to relieve the flesh'(解肌) refers to both mild sweating through pungent-warm medicinals and the opening of the exterior through pungent-cool medicinals for pathogenic qi to exit, resulting in sweating. If the exterior relief of the pungent-warm medicinals happens through the warm Yang qi(陽氣) stimulated the inner Yin fluids(陰液) to discharge as sweat, that through pungent-cool medicinals relieves stagnation in the exterior, opening up a way for the pathogenic heat to ex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main therapeutic mechanism for pungent-cool medicinals to be its coolness relieving heat, the term 'exterior relief through pungent-coolness' becomes erroneous. For the 'exterior relief through pungent-coolness' category to be valid, the meaning of 'exterior relief' needs to be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stimulated sweating but the treatment process that could result in sweating.

Key words : exterior relief through pungent-coolness(辛凉解表), exterior relief through pungent-warmness(辛温解表), exterior relief(解表), flesh relief(解肌), perspiration(發汗)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Received(January 29, 2020), Revised(February 3, 2020), Accepted(February 4,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外感病 초기의 치료법으로 解表法이 있다. 본초학과 방제학 교과서에는 공통적으로 목차 중 첫 번째로 이 解表法을 가진 약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요한 치법으로 볼 수 있다. 解表法은 땀을 내서 肌表의 邪氣를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疏表라고도 하는데, 병증의 寒熱에 따라 辛溫解表法과 辛涼解表法으로 구분된다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다¹⁾.

본초학 교과서에서는 解表藥이 發散風寒藥과 發散風熱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邪氣의 성질을 기준으로 각각 風寒邪와 風熱邪를 發散시키는 효능으로 인해 약을 구분한 것이다. 發散風寒藥의 性味는 대체로 辛溫하여 辛味로서 發散시키고 溫性으로 祛寒하며 發散風寒을 주요 작용으로 한다고 하였고²⁾, 發散風熱藥의 性味는 대체로 辛涼하여 解表하는 작용은 비교적 緩慢하나 風熱을 發散시키는 작용이 강하다고 하였다³⁾. 따라서 약의 氣味를 들어 명명한다면 發散風寒藥과 發散風熱藥은 각각 辛溫解表藥과 辛涼解表藥으로 지칭해도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두 치법 중 發散風寒, 즉 辛溫解表는 風寒邪에 의해 막혀 있던 주리를 열어 땀을 내어 邪氣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하지만 發散風熱, 辛涼解表의 경우는 風熱邪에 의해 주리가 강하게 막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땀을 내고 風熱邪를 발산시키는 것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辛溫解表와 상대적인 辛涼解表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辛涼解表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주제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국내에서는 解表藥의 효능을 고찰한 논문⁴⁾이 있었으나, 이 논문은 본초학 교과서에 기재된 약물의 氣味

와 효능을 연구 주제로 삼은 것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辛涼解表法과 관련하여 여러 편의 논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曹東義 등의 연구⁵⁾는 辛涼解表法의 역사에 대하여 초기부터 明清代까지 간략하게 다루고 있었다. 辛溫解表法과 상대하여 辛涼解表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가들의 치법을 주로 서술하여 통시적으로 辛涼解表法의 발전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辛涼解表의 용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었다.

李桂春 등의 연구⁶⁾는 溫病 初起부터의 증상은 곧 裏熱證이기 때문에 溫病의 치법으로서 辛涼解表라는 용어는 알맞지 않고 辛涼清透라고 써야 한다고 하였다. 解表는 發汗劑를 써서 땀을 내는 것이고, 溫病은 發汗劑를 쓰지 않고 熱이 물러나는 과정에서 땀이 난다고 하였는데, 解表法을 發汗法과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면 올바른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楊學 등의 연구⁷⁾는 汗法을 辛溫發汗과 辛涼發汗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辛溫發汗劑는 『傷寒論』의 처방을 예시로 들었고, 辛涼發汗劑는 『溫病條辨』의 처방을 예시로 들었는데, 辛溫發汗劑는 開腠理하고 通經脈하는 것이 많다면 辛涼發汗劑는 辛涼宣透, 達邪于外를 위주로 한다고 하였다. 汗法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辛涼解表가 주 내용은 아니지만 吳鞠通의 辛涼之劑 세 처방을 구체적인 기전에 대한 설명이 없이 모두 辛涼發汗劑로 칭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楊殿興은 일반적으로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는 辛涼解表法을 가진 처방이 없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麻杏甘石湯을 예로 들어 이 설을 반박하였다⁸⁾. 하지만 저자 역시 麻杏甘石湯의 작용을 辛涼清解라고 하면서 辛涼解表와 비슷한 의미라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1)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典(11).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pp.156-157.
 2)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7. p.151.
 3)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7. p.177.
 4) 연지혜 외 3인. 氣味와 효능 용어를 활용한 解表藥의 효능 고찰. 대한한의학회지. 2017. 30(4). pp.69-82.

5) 曹東義, 王文智, 賈春生. 辛涼解表法의 歷史形成過程研究. 河北中醫藥學報. 2000. 15(4). pp.9-12.
 6) 李桂春, 郭晶晶. 辛涼解表의 理論誤區. 中國醫療前沿. 2013. 8(3). p.23.
 7) 楊學, 孔祥亮. 汗法探微. 傷寒中醫藥雜誌. 2015. 49(1). pp.18-19.
 8) 楊殿興. 《傷寒論》解表法研究(上). 貴陽中醫學院學報. 1998. 20(3). p.2.

학위논문으로 李佩의 연구⁹⁾는 外感病에 辛涼解表를 남용하고 있는 폐해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辛涼解表藥에 속하는 약물 중 薄荷와 牛蒡子를 선택하여 이들의 문헌 연구를 통하여 두 약물이 실제로는 解表하는 작용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현재 辛涼解表藥에 배속된 약물이 적합한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제기한 의의가 있었다.

石玥의 연구¹⁰⁾는 辛涼解表劑로 알려져 있는 銀翹散과 桑菊飲의 임상 적응증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처방은 辛涼解表劑라는 이름에 적합하지 않고 銀翹散은 表裏雙解劑 중의 解表清裏劑, 桑菊飲은 清熱劑 중의 清臟腑熱劑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溫病은 惡寒이 없으므로 表證이 아니고, 風熱表證은 熱邪가 肺를 범하면서 겹쳐서 表證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앞의 연구는 본초학의 분류법에 의문을 가진 것이라면 이 연구는 辛涼解表劑라는 방제학의 분류법에 의문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재까지 중국의 辛涼解表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辛涼解表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辛涼解表에 배속된 병증이나 약물, 처방 등의 적절성 등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연구방법은 먼저 역대의 의서를 순서대로 살펴 보면서 辛涼解表法의 발전과정을 조사하였고, 직접적으로 辛涼解表의 용어가 출현한 부분을 찾아보았다. 다음으로 葉天士의 『溫熱論』과 吳鞠通的 『溫病條辨』에서 辛涼解表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 보면서 辛涼解表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본론

1. 辛涼解表의 역사

1) 辛涼解表法의 발전

漢代의 張仲景이 기존의 方書를 바탕으로 『傷寒雜病論』을 저술한 이후 外感病 초기의 치료에는 麻

黃湯, 桂枝湯으로 대표되는 辛溫解表法이 정립되었다. 이후 唐代의 孫思邈의 『備急千金要方』을 보면 『傷寒雜病論』의 처방 이외에도 葳蕤湯, 芍藥四物解肌湯 등 辛溫解表法과는 다른 涼한 성격의 처방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처방의 약제 구성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볼 때 처방이 이론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辛涼解表의 역사는 기존의 辛溫解表의 한계를 느끼면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宋代의 韓祇和, 龐安時, 朱肱 등의 의가들은 傷寒에 대한 病機의 인식과 仲景의 辛溫解表 처방을 바라보는 인식에 각각 차이를 보임으로 인해 각자의 방식으로 처방을 수정하면서 仲景의 辛溫解表의 처방들을 그대로 답습했을 때 생기는 모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韓祇和는 傷寒의 기전으로 잠복된 陽이 안에서 울결되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麻黃, 桂枝는 發表藥이라고 칭하면서 解表藥의 범주에 石膏, 甘草, 芍藥, 生薑, 豆豉, 薄荷, 柴胡, 葛根 등을 배속하였다. 韓祇和는 실제로 『傷寒雜病論』의 처방을 활용하기보다는, 그의 解表藥의 범주에 속한 약물을 활용하여 처방을 구성하였다. 龐安時와 朱肱은 張仲景의 辛溫解表 처방에 黃芩, 大青, 石膏, 升麻 등의 찬 약을 더하여 처방을 운용하였다. 이들이 새로운 처방을 운용한 것은 張仲景의 辛溫解表 처방의 大熱함을 우려하거나 혹은 계절, 지역에 따라 사람에게 內熱이 있음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金元代의 劉完素의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서 辛涼의 용어가 나타난다. “나는 스스로 雙解散, 通聖散의 辛涼之劑를 만들어서 仲景의 법인 桂枝湯, 麻黃湯으로 발표하는 약을 따르지 않는다.”¹¹⁾라고 하여 辛涼之劑의 예로 防風通聖散¹²⁾과 雙解散¹³⁾의 처

9) 李佩. 基於肖氏表證辨治思路對辛涼解表藥的探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10) 石玥. 辛涼解表劑之“解表”質疑.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11)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9. “余自制雙解, 通聖辛涼之劑, 不遵仲景法桂枝, 麻黃發表之藥.”

12)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25. “防風 川芎 當歸 芍藥 大黃 薄荷葉 麻黃 連翹 芒硝(各半兩) 石膏 黃芩 桔梗(各一兩) 滑石(三兩) 甘草(二兩) 荊芥 白朮 梔子(各一分) 生薑(三片)”

13)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40-41. (防風通聖散에 益元散(砂仁 滑石 各二兩, 炙甘草 四錢), 葱白 五寸, 鹽豉 五十粒, 生薑 三片을

방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雙解’라는 표현과 각 처방의 구성을 볼 때 단순히 解表만의 작용보다는 表裏兼治의 의미를 담고 있다.

2) 辛涼解表 용어의 출현

辛涼解表라는 용어는 明代 劉純의 『玉機微義』에서 찾아볼 수 있다. 傷風의 治方을 辛平解表之劑, 辛涼解表之劑, 辛溫解表之劑, 辛涼解表攻裏之劑로 나누어 각각 처방을 제시하였는데, 辛涼解表之劑는 柴胡升麻湯을 예로 들었다¹⁴⁾.

陶華의 『傷寒六書』에서는 “四時에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고 惡寒이 있으며 노인이든 어린 사람이든 서로 전하는 것을 이름하여 時疫證이라고 하는데, 辛涼한 약을 써서 조금 解表하고 裏證이 나타나 경우에는 급히 攻下한다.”¹⁵⁾라고 하여 역병을 치료함에 裏證이 있지 않은 경우 辛涼之劑를 사용하여 微解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같은 편의 “春分을 지나 夏至에 이르기 전에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惡寒이 없고 갈증이 나는 경우는 溫病이니, 辛涼한 약을 써서 조금 解肌하고 크게 發汗시켜서는 안 된다.”¹⁶⁾를 본다면 辛涼한 약을 통해 溫病을 치료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微解肌’의 ‘微解表’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으며 ‘微解肌’의 작용은 뒤에 ‘不可大發汗’에 근거한다면 發汗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역시 같은 편의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에 머리가 아프고 몸에 열이 나고 또한 惡寒이 있는 자는 곧 感冒인데 그 때가 아닌데 갑자기 추워서

생긴 가벼운 것으로 겨울에 正傷寒의 重한 것과 비할 바가 아니니, 모두 辛涼之劑를 써서 약간 發汗시킨다.”¹⁷⁾에서 辛涼之劑를 통해 小發汗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하였다.

『萬病回春』에서는 “대개 사람의 內火가 이미 동한 데다가 外火가 또 침범한 것이니 辛熱한 약으로 發汗시키는 것은 辛溫한 약만 못하고, 辛溫한 약으로 發汗시키는 것은 辛涼한 약으로 發汗시키는 것만 못하니 한 제로서 즉시 벗어날 수 있다. 辛熱한 약으로 發汗시키는 것은 (병이) 가벼운 경우는 반드시 위태로워지고 위중한 경우는 반드시 죽으니 삼가지 않아서야 되겠는가?”¹⁸⁾라고 하여 辛熱之藥과 辛溫之藥, 辛涼之藥의 發汗力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辛涼解表를 發汗力이 작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發汗力이 큰 辛溫解表에 상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辛涼解表의 기전을 정확하게 기술하기보다는, 무턱대고 辛溫解表를 사용했을 때의 폐해를 우려한 것이다. 우선 熱證이 있어 내부에 열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辛溫解表法을 쓴다면 溫性의 약물이 열을 더한다고 생각한 것이며, 다음으로는 아무리 땀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도 과도하게 땀을 낼 경우 ‘汗多亡陽, 下多亡陰’의 구절처럼 陽氣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 辛涼解表를 사용한 것이다.

辛涼解表는 風熱邪를 發散한다는 것에서 風寒邪를 발산하는 『傷寒雜病論』의 辛溫解表와 상대하여 溫病學에서 주로 언급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검색과정에서 溫病學 문헌에서 辛涼解表라는 용어는 찾기 어려웠다.

이후 辛涼解表라는 용어는 중국의 본초학 교과서의 분류체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초를 효능으로 분류하는 것은 清代 黃宮綉의 『本草求真』에서 볼 수 있지만, 같은 시대에 저술된 본초서의 보편적인 분

더한 것이다.)

14) 姜典華 主編. 劉純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8.

“柴胡升麻湯 治頭痛壯熱, 惡風體疼, 鼻塞咽乾, 痰盛咳嗽, 涕唾稠粘.

柴胡 前胡 黃芩(各六兩半) 荊芥(七兩半) 赤芍 石膏(各十兩) 升麻(五兩) 桑白皮 乾葛(各四兩) 上咀, 薑三片, 豉十粒, 水煎.”

15) 明·陶節菴 撰 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7. “其四時, 有患頭疼, 身熱惡寒, 老幼相傳者, 名時疫證, 用辛涼之藥微解表. 裏證見者, 急攻下.”

16) 明·陶節菴 撰 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6. “交春分至夏至前, 有頭疼發熱, 不惡寒而渴者, 爲溫病, 用辛涼之藥微解肌, 不可大發汗.”

17) 明·陶節菴 撰 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57. “其春, 夏, 秋三時, 有患頭疼身熱, 亦有惡寒者, 卽是感冒非時暴寒之輕, 非比冬時正傷寒之重, 俱用辛涼之劑小發汗.”

18) 李世華 王育學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254-255. “蓋人內火既動 外火又侵, 所以 辛熱發汗不如辛溫, 辛溫發汗不如辛涼之藥發汗, 一劑而立雪. 以辛熱之藥發汗, 輕者必危, 重者必死, 可不謹哉?”

류체계는 아니었고, 『本草求真』의 분류 항목 중 解表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국의 본초학 교과서는 1960년에 成都中醫學院 편저로 人民衛生出版社에서 『中藥學講義』라는 이름으로 초판이 출판되었다. 여기서 解表藥의 하위분류로 辛凉解表藥이 있었고 이후의 판에도 계속 존재하다가 1995년에 上海科學技術出版社에서 출판된 『中藥學』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6판 교재부터 핵심적인 효능을 분류체계로 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辛凉解表藥은 發散風熱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¹⁹⁾ 하지만 현재의 發散風熱藥과 교과서 초판의 辛凉解表藥의 구성 약물을 비교하면 변화가 없다²⁰⁾.

참고로 중국의 방제학 교과서 역시 1960년부터 초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汪昂의 『醫方集解』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목차를 가감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분류를 설정하였는데, 解表劑의 하위분류로 辛溫解表劑와 辛凉解表劑 등을 설정하였다. 하위분류는 판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겪었지만, 핵심적인 辛溫解表劑와 辛凉解表劑는 바뀌지 않았다²¹⁾. 현재는 이 두 분류에 扶正解表劑를 더하여 解表劑가 구성되어 있다.

2. 辛凉解表의 쟁점

1) 發汗法인지의 여부

앞서 辛凉解表를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發汗의 정도가 약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溫病學 문헌에서 비록 용어는 나타나지 않지만 辛凉解表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溫病條辨·上焦篇』에서는 “太陰溫病은 發汗시켜서는 안 되니 發汗을 시키고도 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斑이나 疹이 생기며, 땀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반드시 神志가 흐려지고 헛소리를 한다.”²²⁾라고 하여 溫病에 절대로 發汗시켜서는 안 된

다고 하고 있다. 『溫病條辨·雜說·汗論』에서는 우선 溫熱의 승발하는 기운의 침입을 받아 땀이 저절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辛凉한 약을 써서 저절로 흐르는 땀을 멎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곧 辛凉한 약을 사용하는 이유는 發汗이 아니라 오히려 止汗에 있다고 하였다²³⁾. “이것이 傷寒은 發汗하지 않아서는 안 되고, 溫熱病은 절대로 發汗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크게 갈지 않은 것이다.”²⁴⁾라고 하여 일관성 있게 溫病에서는 發汗을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溫病條辨』의 ‘不可發汗’의 發汗의 의미를 發汗力이 강한 辛溫解表를 지칭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微汗 등 發汗力을 약하게 한다는 표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溫熱邪는 風寒邪에 비해 陰液을 상하는 작용이 두드러지므로 發汗을 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일면 더 설득력을 가진다.

吳鞠通은 辛凉之劑를 辛凉輕劑 桑菊飲, 辛凉平劑 銀翹散, 辛凉重劑 白虎湯으로 나누었는데, 白虎湯은 일반적으로 解表藥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桑菊飲도 『溫病條辨』의 方論에서는 發汗의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곧 辛凉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發汗을 뜻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溫病學에서는 發汗을 시키지 않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葉天士의 『溫熱論』에서는 ‘처음에 辛凉한 輕劑를 쓴다’²⁵⁾, ‘辛凉한 약물로 風邪를 散한다’²⁶⁾, “衛分에 있으면 發汗을 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²⁷⁾, “이빨

2010. p.553. “太陰溫病, 不可發汗, 發汗而汗不出者, 必發斑疹; 汗出過多者, 必神昏譫語.”

23) 오국통 저. 정창현 역. 국역온병조변. 파주. 집문당. 2010. p.683. “又爲溫熱升發之氣所鑠, 而汗自出, 或不出者, 必用辛凉以止其自出之汗, 用甘凉、甘潤培養其陰精爲材料, 以爲正汗之地.”

24) 오국통 저. 정창현 역. 국역온병조변. 파주. 집문당. 2010. p.683. “此傷寒所以不可不發汗, 溫熱病斷不可發汗之大較也.”

25)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파주. 집문당. 2013. p.370. ‘初用辛凉輕劑’

26)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파주. 집문당. 2013. p.371. ‘辛凉散風’

27)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파주. 집문당. 2013. p.374. “在衛, 汗之可也.”

19) 蔣森 외 6인. 從中藥學教材沿革看中藥理論框架發展概況. 環球中醫藥. 2016. 9(3). pp.271-274, 282.

20) 蔣森 외 3인. 統編第1版中藥學教材編寫沿革. 中藥與臨床. 2014. 5(1). pp. 46-49.

21) 初杰. 方劑學分類的研究. 北京中醫藥大學 博士研究生學位論文. 2003. pp.23-29.

22) 오국통 저. 정창현 역. 국역온병조변. 파주. 집문당.

이 광택이 나면서 돌처럼 건조한 것은 胃熱이 심한 것이다. 만약 땀이 없으면서 惡寒이 있으면 衛氣가 偏勝한 것이니 辛涼한 약물로 衛氣를 泄하여 汗을 통하게 하는 것을 요점으로 삼는다.”²⁸⁾라고 하였다. 따라서 衛分證을 치료함에 辛涼輕劑의 약으로 散風하고 汗을 내는 처방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에 인용한 조문에 대해서 章虛谷은 “胃熱이 심한데 도리어 惡寒하는 것은 陽氣가 안으로 울체되어 表氣가 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汗은 나지 않는데, 衛氣가 偏勝하기 때문이니 마땅히 衛氣를 泄하여 汗을 透發하면, 안의 열이 表로부터 흩어진다.”²⁹⁾라고 주석을 달았다.

주석을 바탕으로 조문의 상황을 설명한다면, 안에 胃熱이 있는 상태에서 陽氣는 밖으로 발산되지 않고 체표에서 울체되어 있으므로 表의 氣가 통하지 않아 汗이 나지 않는다. 이것을 衛氣가 偏勝하다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勝의 의미는 衛氣가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아 表가 닫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辛涼한 약물로 衛氣를 泄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막혀 있는 衛氣를 通暢시킨다는 의미이다. 그 결과 表가 열리게 되고 열린 表를 통해 胃熱이 나가게 되는 것이다. 胃熱이 나가면서 汗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透汗, 즉 汗을 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華岫雲 또한 辛涼輕劑에 대하여 “辛涼한 약물로 肺를 여니 곧 汗을 내는 약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³⁰⁾ 여기서 ‘肺를 연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곧 肺의 宣發 작용을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葉天士의 辛涼之劑를 통해 汗이 나오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이러한 기전으로 인해 汗이 나는 것을 發汗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경문에 말하기를 ‘發表함에 열한 것을 멀리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發汗에는 반드시 辛溫之劑를 쓴다. 發汗이라는 것은 表에 있는 皮毛의 邪氣를 흘리고 주리를 열고 津液을 이르게 하고 氣를 통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汗이 나오는 것은 모두 곡식에서 생하고 곡식은 精에서 나오니 陽氣로써 발동시켜 陰液을 짜서 위로 올라가서 이에 곧 汗으로 化하여 玄府에서 나올 수 있으니 천지의 구름이 짜져서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陽이 陰에 더해진 것을 汗이라고 이른다’라고 하였다. …(중략)… 방제는 오직 辛溫한 것만이 주리를 열어서 汗을 낼 수 있다. 근원을 구하는 치료에 이르러서는 정해진 법이 없고 陰陽의 치우침을 구제해야 하니 이후에 汗이 이루어지고 氣가 조화되니 생하나 또한 正發汗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후현들이 辛涼解表가 發汗시킨다는 논설을 만들었으나 알지 못하는 것이다.(發汗에는 반드시 辛溫한 것을 쓰고 때때로 涼劑를 佐藥으로 하는 것으로 涼劑가 發汗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맛이 매운 것은 성질이 涼한 것이 없으니 辛涼 또한 결코 發汗시킬 수 없다. 근원을 구하는 치료에 이르러서는 예를 들어 기허한 자는 氣를 보하여 汗을 열고 血이 허한 자는 血을 보하여 汗을 얻는데, 이것은 곧 陰陽을 조화시켜서 汗을 化하는 근원을 다스리는 것이지 發汗을 이르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다면 모든 약이 發汗할 수 있는 것이니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후현이 ‘溫病에는 汗을 낼 수 없다’고 이르면서 辛涼한 약으로 汗을 내는 뜻을 만들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심한 것이다.)³¹⁾

위의 글은 민국시대 1924년 劉世禎이 서술하고,

28)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岐. 집문당. 2013. p.384. “齒若光燥如石者, 胃熱甚也. 若無汗惡寒, 衛偏勝也, 辛涼泄衛透汗爲要.”

29)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岐. 집문당. 2013. p.384. “胃熱甚而反惡寒者, 陽內鬱而表氣不通. 故無汗, 而爲衛氣偏勝, 當泄衛以透發其汗, 則內熱即從表散矣.”

30)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岐. 집문당. 2013. p.374. “辛涼開肺, 便是汗劑.”

31) 劉世禎述義. 劉瑞澍疏釋. 傷寒雜病論義疏 PDF版. 中醫棒糖論壇 出品. 2007. p.449. “經曰發表不遠熱, 故發汗必用辛溫之劑. 發汗者, 所以散皮毛在表之邪, 開腠理, 致津液, 通氣也. 人之汗出者, 皆生於穀, 穀生於精, 以陽氣發動, 蒸陰液而上騰, 乃得化汗出於玄府, 如天地之雲蒸致雨, 故曰: 陽加於陰謂之汗. …(중략)…方劑惟辛溫開泄腠理, 可以發汗. 至於求源之治, 則無定法, 要以濟陰陽之偏, 而後津液相成, 氣和以生, 亦非正發其汗之謂. 後賢創辛涼解表, 發汗之論, 未之思矣(發汗必用辛溫, 有時佐涼劑者, 非涼劑可以發汗也. 且味辛亦無性涼之品, 辛涼亦決不可發汗. 至於求源之治, 如氣虛者補氣而得汗, 血虛者補血而得汗, 此乃和其陰陽, 以治化汗之源, 非發汗之謂. 若是則百藥皆可取汗, 有是理乎. 後賢謂溫病不可汗, 乃創辛涼發汗之義, 謬之甚矣.)”

劉瑞澍이 주석을 한『傷寒雜病論義疏』의 글이다. 이 글에서도 辛涼解表藥이 직접적으로 發汗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發汗, 즉 땀을 낸다는 것은 『素問陰陽別論』의 ‘陽加於陰, 謂之汗’³²⁾에 근거하여 陽氣가 陰液에 더해져서 나오는 것이므로 辛溫之劑의 陽氣를 쓰는 것인데, 陽氣가 내부의 陰液을 끌어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만을 正發汗이라고 이룬다고 하였다. 그 밖에 땀이 나오는 상황은 여러 처방을 통해 가능한데, 陰陽이 偏勝한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오는 것이므로 이것은 正發汗이 아니라고 하였다.

2) 解肌의 의미

지금까지 辛涼之劑의 發汗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辛涼解表의 역사를 다루면서 解肌의 용어 또한 나타났었는데, 解肌는 解表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었고, 發汗力에서만 차이를 보였다. 『傷寒六書』 이후 『醫學入門』에서는 解肌는 ‘微汗也’라고 하였고³³⁾, 『東醫寶鑑』 역시 『醫學入門』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³⁴⁾.

앞에서도 辛涼之劑에 대하여 『溫病條辨』과 다른 문헌들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溫病條辨』의 解肌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溫病條辨』에서는 辛涼解表의 용어는 나타나지 않고 辛涼解肌의 용어만 나타난다.

살피건대, 傷寒은 땀이 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으므로 發汗하는 것이 가장 좋다. 傷風 역시 땀이 나지 않으면 풀리지 않지만, 절대 發汗하면 안 되고 다만 解肌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桂枝湯과 麻黃湯의 주치증의 차이 및 곧 처방의 차이이다. 溫病 역시 땀이 나야 풀리긴 하나 절대 發汗하면 안 되고, 다만 辛涼한 약으로 解肌해야 하고 辛溫한 약은 절대 쓰면 안 된다. 辛涼解肌法은 邪熱을 밖으로 유도하여 營衛氣

血이 조화되도록 해서 자연스럽게 땀이 나게 하는데 모미가 있으니 역지로 땀이 나게 다그칠 필요는 없다.³⁵⁾

『溫病條辨』에서는 溫病의 치료에서 解肌의 의미는 다만 邪氣가 나갈 통로로서 表를 열어주어 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溫病 처방의 목적으로 땀을 내는 것이 아니라 溫病 처방의 결과로 땀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경우 땀의 양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다.

解肌의 용어는 傷風의 처방에서도 쓰였는데, 여기서의 解肌의 의미는 辛溫한 약을 쓰는 것이지만 傷寒의 처방인 發汗에 상대하여 微發汗의 의미로 쓰였다.

정리하면 『溫病條辨』에서 溫病의 처방에서 쓰이는 解肌로 인해 땀이 나는 것은 처방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보기보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 吳鞠通은 辛涼之劑를 사용하면서 목적으로서의 發汗이 아니므로 解表라는 말을 피하고, 땀이 많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결과적으로 ‘辛涼解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앞서 『傷寒雜病論義疏』의 ‘正發汗’의 개념은 아니다.

III. 고찰

앞서 解表法의 사전적 정의를 본다면 解表法은 發汗法과 큰 차이가 없게 사용되었다. 發散風寒藥(辛溫解表藥)과 發散風熱藥(辛涼解表藥)이 모두 解表藥의 범주에 들어가 있으므로 두 약 모두 發汗이라는 효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溫熱論』과 『溫病條辨』을 살펴보면 땀이 나는 기전에 대하여 葉天士와 吳鞠通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 모두 공통적으로 결과로 땀이 나오는 기전을 언급하였는데, 『溫熱論』에서는 ‘透汗’, 『溫病條辨』은 ‘解肌’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葉天士의 “在衛, 汗之可也.”를 본다면 ‘汗之’라는 표현에서 분명히 땀을 내는 목적으로서의 發汗

3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2.

33) 明·李梴 原著, 田代華 金麗 何永 點校,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p.730.

34) 허준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p.976.

35) 오국통 저, 정창현 역, 국역은병조변, 파주, 김문당, 2010, p.562. “按傷寒非汗不解, 最喜發汗; 傷風亦非汗不解, 最忌發汗, 只宜解肌, 此麻桂之異其治, 卽異其法也. 溫病亦喜汗解, 最忌發汗, 只許辛涼解肌, 辛溫又不可用, 妙在導邪外出, 俾營衛氣血調和, 自然得汗, 不必強責其汗也.”

法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두 의견이 다소 다르지만 葉天士의 다른 글에서 목적으로서의 發汗에 대하여 명확한 처방 등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 중국의 여러 논문에서는 葉天士와 吳鞠通의 의견을 일반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현대 溫病學에서는 葉天士의 衛氣營血辨證 중 衛分證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吳鞠通의 辛涼之劑 중 銀翹散, 桑菊飲을 들어 둘을 연결하고 있다. 두 처방은 방제학의 辛涼解表劑 안에 들어가 있는 처방이다. 현대 실험연구에서 銀翹散은 해열발한작용이 있다고 하고 있지만,³⁷⁾ 發汗이 목적인지 결과적으로 땀이 나오는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解肌’의 용어는『溫病條辨』에서 목적으로서의 發汗과 결과로서의 發汗 모두 인정하고 있다.

解肌를 發汗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의 배경은『傷寒雜病論』16조의 “桂枝湯은 본래 解肌하는 것으로 만약 환자의 脈이 浮緊하고 열이 나면서 땀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쥐서는 안 된다. 항상 이것을 알아서 하여금 잘못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³⁸⁾라고 하였으므로 辛溫한 桂枝와 解肌를 연결 시킴으로써 解肌는 麻黃과 비교하여 약한 發汗力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역대 본초서에서는 땀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님에도 解肌發汗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물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石膏이다. 石膏는 여러 본초서에서 解肌發汗의 효능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 解肌發汗 또한 石膏가 직접적으로 땀을 낸다는 개념은 아니다. 만약 石膏가 직접적으로 땀을 내는 작용이 있다면 石膏를 주약으로 쓰는 白虎湯의 경우 금기증에 表證이 풀리지 않거나 땀이 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수 없다. 石膏의 解

肌發汗 역시 결과적으로 땀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周學解는『讀醫隨筆』에서 “石膏로 火熱을 淸化하면서 내리고, 폐기가 마침내 滋潤을 받아 땀이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도 또한 (體表로) 發散하는 효력과 작용이 아니고, 火熱을 淸化해서 (진액을) 滋潤하는 효력이다.”³⁹⁾라고 하였다. 하지만 淸熱하는 작용이 肌部에서 일어남으로 인해 肌部の 鬱熱을 풀어 肌部를 느슨하게 하여 땀이 나게 한다는 것의 의미이지 꼭 진액을 滋潤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기서의 解肌는 解肌鬱熱의 의미에 더 가깝다. 이렇게 의서에서 같은 解肌, 發汗의 용어를 썼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의미는 구별되어 살펴보아야 한다. 비록 일부 의서에서는 ‘正發汗’의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모든 의서에서 일관성 있게 ‘正發汗’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에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각각이 지칭하는 개념에 따라 알맞은 용어로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辛涼解表의 ‘解表’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辛溫解表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辛味는『素問·藏氣法時論』에서 “급히 辛味를 먹어서 흠어버립니다⁴⁰⁾와 “급히 辛味를 먹어 濡潤시키니, 주리를 열며 진액을 소통시켜 기운을 통하게 합니다.”⁴¹⁾라고 하였는데, 흠어버린다는 것을 통해 땀을 내면서 邪氣를 없애는 작용과 通氣 즉 行氣의 의미로 막힌 것을 뚫어주는 작용 또한 모두 가능하다. 하지만 辛溫之劑의 解表는 직접적으로 溫性的 陽氣가 내부의 陰液을 動하게 하여 밖으로 땀을 나오게 하여 辛味의 전자의 작용에 가까운 것이라면, 辛涼之劑의 解表는 表 부위의 鬱結된 것을 풀어주어 邪熱이 나갈 길을 열어주는 辛味의 후자의 작용에 가깝다. 이것이 麻黃, 桂枝의 辛味の 작용과 石膏의 辛味の 작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辛涼之劑가 병을 치료하는 주요한 기전은 涼

36) 席崇程, 王彤. 淺談“溫病忌汗”與“在衛汗之可也”之統一.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6. 39(10). pp.815-816.

37) 임진석 정리. 溫病學處方解說集. 고양. 대성의학사. 2002. p.115.

38)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36. “桂枝本爲解肌, 若其人脈浮緊, 發熱汗不出者, 不可與之也. 常須識此, 勿令誤也.”

39) 周學解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讀醫隨筆. 파주. 집문당. 2014. p.501 “以石膏淸之降之, 而肺氣遂滋潤而汗出者. 此亦非發散之功, 乃淸滋之效也.”

4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8. ‘急食辛以散之’

4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8. “急食辛以潤之, 開腠理, 致津液通氣也.”

性이 熱을 푸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辛涼解表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게 된다. 현대의 溫病學者인 趙紹琴은 溫病 초기의 치법에 대해서 ‘辛涼解表’가 아니라 ‘辛涼清解’라고 하였다⁴²⁾.

따라서 解表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목적으로서의 發汗法으로 국한하여 보았을 때에는 辛涼解表는 이 범주에서는 포함될 수 없다. 解表라는 용어의 의미가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辛涼解表의 분류체계는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解表의 의미를 목적으로서의 發汗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땀이 나는 것까지 확장해서 본다면 辛涼解表의 분류체계가 들어올 수 있다.

현재의 본초학과 방제학 교과서의 분류 체계에서 發散風熱藥과 辛涼解表劑에 배속되어 있는 약물과 처방에 대하여 각각의 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후속 연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V. 결론

辛涼解表의 역사와 의미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辛涼解表法은 『傷寒雜病論』의 辛溫解表法 정립 이후 치법의 한계를 느끼면서 발전해왔다. 辛涼解表라는 용어는 明代에 처음 나타나며 대체로 發汗의 정도를 약하게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葉天士는 辛涼한 약물로 막혀 있는 衛氣를 通暢시켜 열린 表를 통해 熱이 나가면서 땀이 나오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3. 『溫病條辨』에서 解肌의 용어는 辛溫之劑를 통한 微發汗과, 辛涼之劑를 통해 다만 邪氣가 나갈 통로로서 表를 열어주어 결과적으로 땀이 나는 두 가지를 의미한다.
4. 辛溫之劑의 解表는 직접적으로 溫性의 陽氣가 내부의 陰液을 動하게 하여 밖으로 땀을 나오게 하는 것이라면, 辛涼之劑의 解表는 表 부위의 鬱結된 것을 풀어주어 邪熱이 나갈 길을

열어주는 의미를 가진다. 辛涼之劑가 병을 치료하는 주요한 기전은 涼性이 熱을 푸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辛涼解表라는 말은 옳지 않게 된다.

5. 辛涼解表의 분류체계가 성립하려면 解表의 의미를 목적으로서의 發汗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땀이 나는 것까지 확장해서 보아야 한다.

References

1. 姜典華 主編. 劉純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2. 東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東洋醫學大事典 (11).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9.
3. 劉世禎述義, 劉瑞瀾疏釋. 傷寒雜病論義疏 PDF 版. 中醫棒棒糖論壇 出品. 2007.
4. 李世華 王育學 主編. 龔廷賢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5.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6. 李佩. 基於肖氏表證辨治思路對辛涼解表藥的探究.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7. 明·陶節菴 撰 黃瑾明 傅錫欽 點校.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8. 明·李梴 原著. 田代華 金麗 何永 點校. 醫學入門.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9. 石玥. 辛涼解表劑之“解表”質疑. 北京中醫藥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10. 席崇程, 王彤. 淺談“溫病忌汗”與“在衛汗之可也”之統一.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016. 39(10).
11. 宋乃光 主編. 劉完素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2. 楊殿興. 《傷寒論》解表法研究(上). 貴陽中醫學院學報. 1998. 20(3).
13. 楊學, 孔祥亮. 汗法探微. 傷害中醫藥雜誌. 2015. 49(1).
14. 연지혜 외 3인. 氣味와 효능 용어를 활용한 解表藥의 효능 고찰.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42) 彭建中 等 編著. 趙紹琴臨證驗案精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0. p.3.

2017. 30(4).
15. 오국통 저. 정창현 역. 국역온병조변. 과주. 집문당. 2010.
 16. 王士雄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溫熱經緯. 과주. 집문당. 2013.
 17. 李桂春, 郭晶晶. 辛涼解表的理論誤區. 中國醫療前沿. 2013. 8(3).
 18. 임진석 정리. 溫病學處方解說集. 고양. 대성의학사. 2002.
 19. 蔣森 외 3인. 統編第1版中藥學教材編寫沿革. 中藥與臨床. 2014. 5(1).
 20. 蔣森 외 6인. 從中藥學教材沿革看中藥理論框架發展概況. 環球中醫藥. 2016. 9(3).
 21. 전국한의과대학 본초학 공동교재편찬위원회 편저. 본초학. 서울. 영림사. 2017.
 22. 曹東義, 王文智, 賈春生. 辛涼解表法的歷史形成過程研究. 河北中醫藥學報. 2000. 15(4).
 23. 周學解 著. 三鼎 白上龍 國譯評註. 評註讀醫隨筆. 과주. 집문당. 2014.
 24. 初杰. 方劑學分類的研究. 北京中醫藥大學 博士研究生學位論文. 2003.
 25. 彭建中 等 編著. 趙紹琴臨證驗案精選. 北京. 學苑出版社. 2000.
 26. 허준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